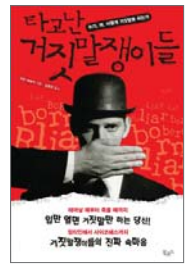


사람들은 점점 거짓말쟁이가 되어갔다

‘타고난 거짓말쟁이들’

이언 레슬리 지음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에는 거짓말을 통해 만들어진 거짓말의 인물 카이저 소제가 등장한다. 심리학자 벨라 드플로가 147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인간은 하루 평균 1.5회씩 거짓말을 한다. 또 다른 연구자는 우리는 첫 만남에서 10분 만에 거짓말을 세 번이나 한다고 했다.



우리는 하루 평균 1.5회씩 거짓말을 할 정도로 거짓은 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사진은 거짓이 만들어낸 반전이 돋보이는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한 장면.

인간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은 아이들의 행동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 살 미만의 아이들조차 엄마를 속이는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3~4살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를 위한 거짓말을 자주 하기 시작한다. 여섯 살이 되면, 이제는 95%의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 영국의 정치 분석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이언 레슬리의 ‘타고난 거짓말쟁이들’은 심리학과 생물학, 사회학 등 다양한 이론을 동원해 인간이 내뿜는 거짓말의 실체를 낱알이 파헤친다. 뇌과학, 심리학, 역사, 문화, 예술, 정치,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거짓말에 관한 지식을 풀어내 인간 존재와 사회적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인도한다.

저자는 인간이 아가 때부터 거짓말을 하는 능력을 갖추고 태어났으며, 생존이나 사회 적응을 위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거짓말과 속임수가 탄생하게 된 과정도 흥미롭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해군정보국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정보를 제시했을 때 나치 지도자들은 항상 그들이 전에 세웠던 구상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히틀러의 장교들은 증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심지어 만들어내기까지 해 히틀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는 것이다.

사담 후세인은 정치계에 만연한 거짓말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후세인이 직언을 한 장관을 토막 내 살해한 뒤 그의 부하들은 후세인이 듣고 싶어하지 않은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그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어갔다.

또 전장 중 모르핀이 떨어졌을 때 끔찍한 부상을 당한 병사에게 소금물 희석액을 모르핀이라고 속인 뒤 주사했더니 수술 도중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저자는 얼굴과 말에 주의하면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알아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심리학자 에크만의 실험을 통해 파우아뉴기니의 포어족은 미국인들의 여러 가지 표정을 담은 사진을 보며 그들의 감정 상태를 예측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훈련받은 관찰자들은 얼굴 표정을 보고, 거짓말쟁이를 쉽게 가려낼 수 있었다.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거짓말이 발각되기 쉽다는 것이다.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을 분간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느낄 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한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사이코패스는 뇌에 뉴런 연결망이 많아 창조적이고 화술도 뛰어나다고 한다. <북로드·1만6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혁명의 시대, 세상을 바꾼 그림 이야기

‘명작, 역사를 만나다’

우정아 지음

술한 주검들을 들고 프랑스 공화국의 삼색기를 흔들며 군중들을 이끄는 한 여인의 모습은 프랑스 7월 혁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낭만주의 시대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1830년작)가 보여주는 모습이다.

한장의 그림은 때론 어떤 많은 설명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울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수학한 미술사학자 우정아씨가 펴낸 ‘명작, 역사를 만나다’는 18세기 후반 신고전주의에서 19세기말 후기인상주의까지 대표작을 통해 들여다본 사회사(史)다. 저자는 이 시기를 이미지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시대, 세상의



변화가 이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던 시대라고 규정했다. 책은 자크 루이 다비드의 ‘마라의 죽음’, 프란시스코 고야의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 윌리엄 터너의 ‘노에선’, 클로드 모네의 ‘해돋이-인상’, 오귀스트 로댕의 ‘지옥의 문’ 등 모두 34편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각 작품의 형태, 색채와 미술사 등과 함께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며 변화를 겪었던 사건과 인물 등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난 1년간 네이버의 ‘오늘의 미술’에 ‘서양미술 산책’이라는 타이틀로 연재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글을 수정·보완해 출간했다. <아트북스·1만7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폭력의 실체, 국가는 누구 편인가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

박노자 지음

‘당신들의 대한민국 1·2’,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등 다양한 책을 펴낸 러시아 출신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한국학) 교수는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관찰자다.

박교수가 최근 펴낸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는 ‘박노자의 뼈뺀 국가론-폭력으로 유지되는 국가와 결별하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저자는 예전에 비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국가라든, 근대라든, 자유주의라든, 자본주의의 주박(呪縛)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국가의 실체와 국가폭력의 실체에 초점을 맞춘 책은



무엇보다 그 폭력이 여태까지 어떻게 합리화 되고 낭만화되어왔는가를 하는 ‘과정’을 조망하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불교·기독교 등 세계 종교가 어떻게 군사주의와 결탁하게 됐는지, ‘일리아드’부터 영화 ‘람보’, ‘300’에서 군사적 폭력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낭만화 되었는지, ‘폭력적 남성성’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고정화되었는지 등이 책의 초점이라고 밝혔다.

추천사를 쓴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이 책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말했다. 불편하지만 꼭 읽어야 할 책이다. <한겨레출판·1만 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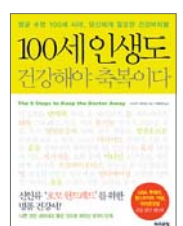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해법

‘100세 인생도...’

라시드 부타르 지음

사람 수명이 늘면서 100세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헨드레드’란 말이 생겼다. 수명이 늘어난 것은 인간에게 누리려면 건강해야 한다. 미국의 최고 의사 5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된 라시드 부타르의 신간 ‘100세 인생도 건강해야 행복하다’는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해법을 제시해준다.

저자는 약이나, 수술 없이도 체질 개선을 통해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마카린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다.

또 혈당지수가 높은 사람은 딸기와 바나나 섭취에 주의하고, 흡연 다음으로 가장 건강에 나쁜 습관은 술이 아니라 커피를 꼽았다. 탄산음료에 함유된 최악의 살인 물질인 ‘설탕’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라이프맵·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삼성,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까지

‘왜 삼성인가’

고승희 외 지음

지난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설립한 삼성그룹은 무역·기계·조선·건설·전자·화학·섬유·제지·유통·호텔·광고대행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업을 확장하면서 글로벌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했다.

‘왜 삼성인가’는 경제경영전문가인 전·현직 국내 대학교 교수 6명이 삼성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문헌은 물론, 회사 밖에서 수집한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워크숍과 토론을 거쳐 공동 저술한 책이다.



창업과 반도체 업계 진출, 이견 회 회장의 취임 과정 등 삼성 그룹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삼성의 인재관과 삼성의 창조경영·인재경영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저자들은 “21세기에 들어서 삼성은 2위 그룹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으며, 1950년대 한국 최고의 기업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맵·1만8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인을 중독시킨 달콤한 초콜릿 역사 읽기

‘초콜릿의 지구사’

사라 모스·알렉산더 바데녹가 지음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초콜릿의 역사는 16세기 에스파냐 탐험대가 중앙아메리카에서 ‘신들의 열매’로 불리는 카카오 콩을 접하면서 시작된다.

유럽의 중세 문화와 문헌 연구자인 사라 모스와 알렉산더 바데녹가 펴낸 ‘초콜릿의 지구사’는 중독성을 지닌 초콜릿이 어떻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는지 그 유래와 전과과정, 생산과 소비의 명암, 이미지 변천의 역사를 탐구한 책이다.

저자들은 18세기 유럽 상류층의 필수품이었던 초콜릿이 19세기 기계화에 성공하면서 노동자계층까지 확장된 이후 20세기 초에는 건강과 영양, 단단한 중산층



가정을 상징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여성의 성적 매력, 탐닉 사치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책은 또 초콜릿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모두 노동과 세계화라는 역사적 관점과도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다.

책의 말미에는 음식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써 온 주영하씨가 ‘한반도 초콜릿의 역사에서 제국의 그림자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식민지 시대에 전파된 한국 초콜릿의 역사를 다룬 글이 실렸으며 카쿠보이 쿠키, 핫초코 등 다양한 초콜릿 요리법도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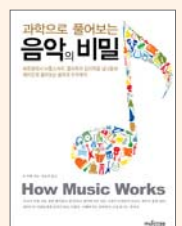
<휴머니스트·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과학으로 풀어보는 음악의 비밀=과학자이자 음악가인 존 파웰이 들려주는 과학으로 풀 음악 이야기. 음정이 맞지 않는 악기는 왜 끔찍한 소리를 내는지, 북소리만으로 유리잔을 깨 수 있는지 등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다. 귀를 잡아채는 팝송의 매력, 모차르트의 조성에 얽힌 비밀, 작곡에서 화성이 하는 역할 등도 들려준다. 음악의 기본 원리와 연주 등 음악과 관련한 즐거움을 전해준다. <뮤지트리·1만5800원>

▲화차=미야베 미유키의 미스터리 걸작. 기존 번역본에서 빠지거나 축약된 부분을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되살려냈다. 저자 특유의 인간적이고 세심한 필치, 치밀한 구성이 더욱 생생하게 전달된다. 거대한 자본에 잠식당한 현대 소비사회와 크고 작은 욕망을 좇다가 예기치 못한 비극에 휘말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낙오된 이들을 어둠으로 삼켜버리는 비정한 도시의 현실이 그려진다. <문학동네·1만3800원>

▲새빨간 논리=달레마, 권위호수의 오류 등 일상생활에서 무심결에 쓰이는 48가지의 논리상 오류를 종류별로 파헤친다. 서울대 페이톤, 데카르트의 신 존재 증명, 체스주자와 폭력성의 연계 여부 등 사회 각 분야에 숨어 있는 오류의 실체가 낱알이 공개된다. 저자는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나폴레옹의 출현을 예고한 것처럼 알려진 일화에 대해 이미 결과가 나온 뒤에 주장에 들어맞는 정보만 골라잡는 방식으로 교묘히 ‘시간 차’를 이용했다고 지적한다. <원소잡이·1만4000원>



▲화가의 눈=미술사가이자 사진작가인 플로리안 하이네는 화가는 우리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까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화가들의 그림 속에 담긴 실제 장소들을 찾아갔다. 화가 22명이 그린 22점의 풍경화 속 실제 장소를 찾아 이탈리아에서부터 오스트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곳곳을 여행하고 그림 속 장소들의 현재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예경·1만9800원>

▲로그아웃에 도전한 우리의 겨울=미국에 사는 18세 소녀 에니는 석달 동안 인터넷, 텔레비전, 아이폰 등 정보통신 기기 없이 지냈다. 미디어 생태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수잔 모사트는 에니를 포함한 10대 자녀 세 명과 함께 6개월간 IT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로그아웃 실험에 도전해 그 결과를 책으로 펴냈다. 아이들은 페이스북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지 못하고, 인터넷 투머를 혼자 모르는 데다, 아이폰 대신 유선 전화기로 통화해야 한다는 데 짜증과 불만을 쏟아냈다. <민음인·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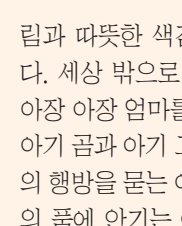
▲기자와 목사, 두 바보 이야기=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손석준씨와 목회자이자 문학평론가인 김기석 목사가 교회의 현실을 비롯해 불교, 철학 등을 주제로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를 담았다. 손씨는 “부당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김목사는 “타자를 나와 무관하지 않은 존재인 이웃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답했다. 자본의 논리 앞에 무너져가는 인권의 실상과 기독교인의 책임 등도 이야기한다. <꽃피리·1만5000원>



▲철가방을 든 천사=나눔 사제로 밝혀 정교 교과서에 실리게 된 ‘기부천사’ 중국음식 배달원 고 김우수씨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동화. 지난해 9월 배달 사고로 하늘로 떠났지만 그는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삶을 실천했다. 그는 고아원을 나오고 구걸, 막노동, 지게꾼 등의 일을 하며 힘들게 살면서도 어려운 아이들에게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자신의 보험금 수령자를 어린이재단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불우했던 그의 어린시절과 행복을 배달하는 철가방 천사가 된 과정을 담고 있다. <북오션·1만1000원>

▲상아의 누에고치=대규모 뽕나무 재배단지 가 있는 전북 부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새롭게 꾸렸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누에고치를 이용해 비단실을 뽑아 내기 시작한 잠업의 기원과 역사도 담겨있다. 상아와 부남의 간절한 사랑과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 누에의 소중한 의미를 담았다. <청개구리·1만1000원>

▲단 1초 동안=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과학 이야기를 참신한 발상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소개하는 칼데콧 아너 수상작가



스티브 젠킨스의 신작이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1초 동안에 날갯짓을 몇 번 하는지, 1분 동안 달팽이가 거머잡 거리가 얼마인지, 대나무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자라는지 등을 통해 1초, 1분, 1시간, 하루 등 시간의 흐름을 쉽게 알려준다. <토도북·1만원>

▲태어나 줘서 고마워=아기를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의 마음을 귀여운 그림과 따뜻한 색감으로 담은 일본 그림책이다. 세상 밖으로 막 나갈 채비를 마친 아기가 가장 가장 엄마를 찾아 걸어가는 모습, 길에서 아기 곱과 아기 고릴라, 아기 돼지를 만나 엄마의 행방을 묻는 아기의 모습, 그리고 결국 엄마의 품에 안기는 아기가 행복한 모습이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아이세움·9500원>

▲그래서 이런 풍속이 생겼대요=의식주 생활풍속, 열두달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통 의례 풍속 등 현재 우리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풍속, 우리 조상들의 믿음인 민속 신앙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동화작가들의 모인인 우리누리가 공동 집필했다. <길벗스쿨·9천800원>

어린이 책꽂이